



백 순

백 순은 백관수의 둘째 아들로 1939 년에 태어나, 1962 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고 1968 년 도미하여 오하이오대 (Ohio University) 와 웨스트 버지니아대 (West Virginia University)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테네시계곡개발청(Tennessee Valley Authority)의 경제학자, 테네시대학(University of Tennessee)의 연구교수,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DC)의 교수, 킹스파크 대학교(Kingspark University)의 교수를 역임, 한미경제학회(Korean American Economics Association) 부회장과 워싱턴 경제연우회(Washington Society of Economists) 회장을 지냈다. 테네시 주 낙스빌한인회(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 in Knoxville, Tennessee)의 회장으로 봉사했다.

지난 28 년 봉직하던 미연방정부 노동성의 선임경제학자직(Senior Economist of the U.S. Department of Labor)에서 은퇴하고 현재 워싱턴버지니아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구워싱턴침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교수로 후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워싱턴중앙장로교회(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의 원로장로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등 워싱턴판과 미주복음신문의 칼럼리스트이다.

[그래도 주님사랑 넘치면](1999),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은혜의 눈송이를](2005), [워싱턴광장에서 시편을 읊으리라](2016), 의 세 신앙시집과 [징검다리](2017)의 시집, 그리고 [형이상학시인론](조선문학총서 18, 2007), [미국계관시인론](조선문학총서 25, 2014), [영국계관시인론](조선문학총서 26, 2014)의 세 시평론집을 출판했고, [해외문학], [자유문학], [화백문학]에 시인으로, [한글문학]에 수필가로, [조선문학]에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